

정부 R&D 예산 축소...공공기관 사내벤처가 사라진다

KPS·KDN·인터넷진흥원 육성 중단...한전·농어촌공사만 유지 일자리 창출·혁신기술 개발 등 성과에도 경영난에 축소·폐지 결정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사내 벤처(예비 창업자) 기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 방침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들이 사내 벤처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사내 벤처 육성은 혁신 기술 개발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전 기관

들이 벤처 육성을 포기하면서 지역 경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중 과거 사내 벤처 제도를 도입했던 5개 기업 중 3곳은 사내 벤처 육성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사내 벤처 제도를 도입한 한전 KDN은 공모를 통해 '사드론테크', '케이몬스터'

등 2개 사내 벤처팀을 선정하고, 이듬해에는 '스마트라인', 'UPSG' 등의 사내 벤처를 통해 선로의 혁신상태를 확인 가능한 탐사 단말장치 개발 및 고 위험 현장업무까지 수행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전KDN은 지난 2020년부터 사내 벤처를 선정하지 않고, 기존에 선정된 사내 벤처에 대한 2년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후 사내 벤처 육성을 중단했다.

한전KPS 역시 지난 2021년 1호 사내 벤처팀으로 'SHE-Tek(슈텍)'을 선정하고 지원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0년 사내 벤처 제

도를 도입하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첫 사내 벤처팀인 '시큐리티 AI+'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현재는 사내 벤처 선정 및 육성은 중단했다.

사내 벤처 제도는 민간 주도 개방형 혁신 창업 추진, 공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운영됐으나, 정부 기조의 변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축소·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발발한 코로나 19 및 고물가가 장기화 등 경기침체가 세수를 감소하게 했고, 관련 예산 감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사내 벤처 육성에 관련된 사업이

통폐합되고,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사내 벤처 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소셜벤처', '여성벤처', '사내 벤처' 부문으로 나뉘는데, 중기부가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사내 벤처 수는 29개로, 전년(50개)에 견줘 21개(42%)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 벤처의 또다른 등용문으로 지난 2018년 중기부가 시작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역시 지원금 축소 등으로 예비창업패키지로 통폐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K-팝 공연과 함께 K-푸드도 미국 MZ공략 나섰다

미국 퀸즈서 K-푸드 체험 행사 공연·현장 쿠킹 클래스 큰 호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즈에 위치한 대형쇼핑센터 스키이뷰에서 K-팝 공연과 함께하는 K-푸드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대(對)미국 K-푸드 수출액은 6억1000만 달러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 자리에 올라선 만큼, 농식품부와 aT는 미국 전역에 불고 있는 K-푸드 인기를 가속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과자와 음료를 비롯해 최근 MZ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떡볶이, 냉동 김밥 시식 공간을 마련하고, 홍삼과 곤약 젤리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뮤지컬 배우 정대현이 직접 공연을 펼치며, 김밥과 소주 카데일 등을 활용한 현장 쿠킹 클래스도 진행하는 등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장에서는 홍보 제품들의 미국 현지 판매처를 QR코드로 안내해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마케팅감독 웨슬리씨는 "최근 미



미국 뉴욕에서 열린 K-푸드 소비자 체험 행사장에서 현지인들이 한국 과자를 살펴보고 있다. <aT 제공>

국은 MZ세대를 중심으로 K-팝, K-푸드 등 K-컬처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며 "이미 작년부터 한국의 'K'를 활용한 쇼핑센터 마케팅을 기획·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는 물론 쇼핑물 고정고객 확대 등에도 큰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행사 기획 의도를 전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K-푸드의 소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유망 제품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망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학연금, 농정원과 교직원 은퇴후 삶 설계 위한 귀농귀촌지원 협약

귀농귀촌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교직원 은퇴 후 삶 설계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

여,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통한 맞춤 정보 제공,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교직원 재능기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교직원의 은퇴 이후 인생 3막 설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위해 전문적인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체계적인 교육, 통합된 정보, 현실적인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의 은퇴 후 삶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안정적인 삶 설계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촌 맞춤형 재능나눔 봉사

21일까지 기관·대학생 등 참여 물리치료·미용관리·문화공연 등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1일까지 순창군 인계면 체육관에서 '농촌재능나눔활동'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활동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전문 지식과 경험, 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지원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관련 기관, 단체, 대학교, 대학생 봉사 동아리 등을 선별해 활동비를 지원하며, 현재 전국 23개 단체와 4개 대학교, 30개 대학생 봉사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농촌재능나눔활동은 재능나눔활동 단체인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의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돌보기 제작, 의치 관리, 만성질환

교육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이 진행된다.

또 전복농협, 전복문화관광재단, 순창군 가족센터, 전복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활동 첫날인 19일에는 전복농협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정촌 버스'를 통해 피부, 헤어 등 미용관리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전복문화관광재단에서 준비한 청년예술팀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참여 단체들은 간식 나눔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전개하는 이번 활동은 농촌주민에게 더 많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첫발을 디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사회공헌기업대상' ESG부문 대상

한전KDN은 지난 14일 열린 '2024 사회공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ESG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사회공헌기업대상은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전KDN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외 비재무적 경영요소들을 심사하는 ESG부문에서 지난 2021년 수립한 ESG경영 비전 및 전략에 대한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전KDN은 친환경 기반 에너지ICT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구농마을', '정기적인 취약계층 기부' 등 활동들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았다.

또 한전KDN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투자·판매 종합 지원제도, 중소기업 ESG지원사업, 창업·벤처 기업 육성프로그램, 정부 육성 기술마켓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현대 산업의 다양화 속에서 탄소중립과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하는 ESG경영의 가치는 기업 생존에 필수 사항이 됐다"며 "한전KDN은 국내에서 유일한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맡은 역할에 대한 고민과 ESG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